



시편 18편 2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의 번역과 신학적 의미 -사무엘하 22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형(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시편 18편은 일반적으로 제왕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시의 표제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에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이 제왕시이지만 동시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며 서술하는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시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런데 시편 18편은 구약성서 안에서 전체가 평행되는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이 그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두 본문은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 본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과 문제가 존재한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낱말이지만 서법(or-thography)의 차이를 보이거나 동사의 시제를 다르게 사용함이 관찰된다. 낱말의 성을 바꾸어 표현하기도 하며, 전치사를 통해 목적어를 나타내는 곳에

www.kci.go.kr

서 평행본문은 동사접미사로 수정하기도 한다. 특정 단어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접속사, 전치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단어나 문장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기도 한다. 이런 점은 두 본문이 전승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두 평행본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드러지는 것은 시편 18편 2절이다.¹ 2절 전체가 사무엘하의 평행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보통은 한 두 낱말이 추가되는데, 절 전체가 추가된 것은 2절이 유일하다.² 또한 시편 18편 2절에서 ‘사랑하다’로 번역된 동사 אָהַב(라함)은 이곳을 제외하고는 구약성서에서 거의 ‘공홀히 여기다’의 의미인 피엘(piel) 형태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동사 אָהַב의 칼(qal)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본고는 두 평행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고려하면서 시편 18편 2절의 번역에 대하여 검토해 보되,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에 비해 본문이 더 현대화되었으며 시편 18편에 후기 성서히브리어의 특징 중 하나인 아람어화 현상(aramaism)이 나타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또한 아람어 사본인 타르굼(Targum)과 비교하며 아람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시편의 אָהַב을 ‘사랑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에는 없는 시편 18편 2절의 존재가 평행본문인 사무엘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편 18편의 한글 개역성경과 히브리어 성서(MT)에는 절수의 차이가 있다. 개역성경의 1절이 히브리어 성서(MT)에서는 2절이다. 이 글은 히브리어 성서의 절수를 따를 것이다.
 2 접속사나 비분리전치사를 제외하고 시편에만 추가되어 있는 낱말 및 행은 다음과 같다. 7절(לַפְּנֵי, תְּבוּאָה), 12절(סִתְּרוּ), 13절(עֲבֹרָה, בָּרָד), 15절(רָב), 25절(יָדָה), 36절(וַיִּמְנֹךְ, חֲסֵדוֹ), 반대로 사무엘하에만 추가되어 있는 낱말은 다음과 같다. 39절(וַאֲכָלָם), 43절(אֲדָקָם), 47절(צֹרָה). 39절의 경우 사무엘하의 쿰란사본은 시편과 같이 삭제되어 있다. 사무엘하에만 들어 있는 행도 하나 존재하는데, 3c이다(וַיִּשְׁעֵנִי מִחַוֹּס).

2.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언어학적 비교 분석

1) 연구사

일찍이 크로스(F. M. Cross)와 프리드만(D. N. Freedman)은 두 본문을 상세히 관찰하고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두 본문의 서법차이에 주목하면서 사무엘하가 더 본문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었다.³ 그들은 두 본문이 각각 전승과정에서 개정되어 왔지만, 시편보다 사무엘하가 더 고대적(archaic) 읽기를 보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시의 연대를 대략 기원전 9-8세기로 규정하였다.⁴ 크로스는 이 시에 담겨 있는 고대 서법은 북이스라엘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이 시의 언어와 문체가 고대 가나안 문학과 교차되고, 특히 8-16절에 들어 있는 신현(theophany) 모티프가 우가리트 문헌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었다.⁵ 크로스의 기여는 서법에 대한 관찰을 넘어 접속사에 대해서도 상세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두 본문의 접속사 사용에 대하여 마소라 본문(MT) 뿐만 아니라 70인경과 불가타 및 페쉬타까지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속사의 차이를 의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비의도적인 것으로 보았다.⁶

제임스 바(J. Barr)도 두 본문 사이의 서법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시편

3 Frank Moore Cross and David Noel Freedman, "A Royal Song of Thanksgiving: 2 Sam 22=Ps 18",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2 (1953), 15-54.

4 크로스와 프리드만은 특히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불완전서법의 사용이 바빌론 포로 이전 시기를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윗글, 5-17.

5 윗글, 20.

6 크로스에 따르면, MT에서 두 본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무엘하는 106개의 콜론 중에서 47개가 접속사로 시작되며, 시편은 107개의 콜론 중에서 47번이 접속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두 본문은 16번의 경우에서 다른데, 시편은 접속사가 나오는 8번의 경우가 사무엘하에는 빠져있으며, 다른 8번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사무엘하 22장의 70인경은 54개의 콜론이 *kaì*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사무엘하 MT와 6개의 차이가 있다. 시편의 70인경은 53개의 콜론이 *kaì*로 시작하며, 여기에는 MT와 6번의 차이가 난다. 불가타의 경우 사무엘하는 18개의 차이가 있으며, 시편은 9개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무엘하의 페쉬타는 38번 차이가 있으며, 시편은 34번의 차이가 있다. 윗글, 17.

이 사무엘하에 비해 바브(ו)나 요드(י)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일관되지는 않음을 잘 관찰하였다.⁷ 그러나 바는 두 본문의 차이를 크로스나 프리드만처럼 북이스라엘 방언과의 관련성으로 보지 않았으며, 두 본문이 각각 다른 전승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시편의 서법이 사무엘하보다 후기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한편, 두 본문의 서법보다는 문법적인 변화, 특히 시제에 주목하여 이 시를 비교한 학자들이 있다. 먼저 롱에이커(R. Longacre)는 사무엘하 22장에 비해 시편 18편이 ‘고대 과거형’(old preterites)을 체계적인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⁸ 고대 과거형은 흔히 익톨형태(yiqtol) 즉, 미완료라고 부르는 접두 활용형(prefix-conjugation)이 과거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본래 산문체에서 접두 활용 동사가 과거 상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접속사 바브와 함께 쓰이는 바익톨(wayyiqtol) 패턴인데, 시편 18편에서는 접속사 바브를 동반하지 않는 익톨 형태가 명확하게 과거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난다. 특히 사무엘하의 바익톨 형태로 기록된 행이 시편의 평행절에는 익톨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⁹ 로버트슨(D. Robertson)은 이러한 고대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히브리 시를 초기 연대로 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준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¹⁰ 블로흐(Y. Bloch)도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언어를 분석하였는데, 특별히 4-25절에 짧은 접두 활용 동사가 나타나거나 바익톨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부분을 과거

7 James Barr, *The variable spellings of the Hebrew Bible* (Th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69-174.

8 Robert E. Longacre, "Discourse Structure, Verb Forms, and Archaism in Psalm 18", *Journal of Translation* 2 (2006), 17-30.

9 위의 예에 해당되는 절은 다음과 같다. 7절(וַיִּשְׁמַע / וַיִּשְׁמַע), 12절(וַיִּשַׁח / וַיִּשַׁח), 39절(וַיִּפְּלוּ / וַיִּפְּלוּ), 44절(וַיִּפְּלוּ / וַיִּפְּלוּ).

10 Yigal Bloch, "The Prefixed Perfective and the Dating of Early Hebrew Poetry—A Re-Evaluation", *Vetus Testamentum* 59 (2009), 36. 재인용.

사건의 서술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¹¹ 그러나 블로흐는 그러한 과거형을 나타내는 접두활용동사의 사용이 기원전 6세기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기에 고대 과거형의 사용을 무조건 초기 히브리 시라고 추정하는 근거로 간주할 수는 없음을 주장한다.¹² 국내 학자 중에서는 최명덕이 시편 18편에 나타나는 접두 활용동사를 과거형으로 번역해야 함을 강조한다.¹³ 그는 접두 동사 익톨은 문맥에 따라 미완료로 볼지, 과거형으로 볼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형태는 족보가 다른 전혀 별개의 동사임을 지적한다.¹⁴ 시편 18편에서 사용하는 익톨 형태를 살펴볼 때, 최명덕의 지적은 적절하다. 성서 히브리어의 접두 활용 동사 익톨은 북서 셈어의 영향 아래에서 각기 다른 접두 활용법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북서 셈어에서 짧은 접두 활용형이라고 할 수 있는 yaqtul은 의지(jussive)를 표현하거나, 과거 상황을 표현하며, 긴 접두 활용형 yaqtulu는 직설법에서 미완료 상을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시편 18편의 익톨은 부분적으로 과거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절이 있으며, 이것은 사무엘하의 평행절에 나타나는 바익톨 구절들과 대조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블로흐의 지적은 시편이 익톨을 과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시편이 사무엘하보다 앞선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편에서 익톨을 사용하고 있는 구절에서 사무엘하가 바익톨을 사용하는 것으로 두 본문의 선후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본문 전체에 걸쳐 서법의 차이가 있음을 통해 본문의 읽기 전통이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1 윗글, 48.

12 윗글, 37, 61-64.

13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77-79.

14 윗글, 83.

두 본문의 문법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차이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한 사람은 테론 영(T. Young)이다. 영은 두 본문을 관찰한 결과 162개의 차이점을 발견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서법, 즉 읽기모(matres lectionis)에 대한 사용임을 역설한다.¹⁵ 영은 두 평행 본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의도적인 것(예를 들면, 서기관의 실수나 당시의 관습)과 의도적인 개정을 구분하였는데, 서법보다는 문법적인 변화, 단어의 차이 및 첨가 등에 주목하여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2)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언어학적 비교 분석

필자는 시편과 사무엘하의 두드러진 차이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많은 학자들이 주목했던 것처럼 서법의 차이이다. 두 본문을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읽기모의 사용 여부이다. 전반적으로 시편이 사무엘하에 비해 완전서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¹⁶ 단순히 서법의 차이만을 가지고 본문의 기록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콤파사본으로 관찰 범위를 넓혀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된다.¹⁷ 시편 18편 19절의 יְקַדְּמוּנִי(에카드무니)가 사무엘하의 마소라 본문(MT)에서는 불완전서법(יְקַדְּמוּנִי)으로 쓰였지만, 사무엘하의 콤파사본(4Q51)은 시편과 같이 완전서법(יְקַדְּמוּנִי)으로 쓰여졌다. 또한 MT 사무엘하 22장 48절의 נְקַמֹּת(느카모트)가 콤파사본에서는 시

15 Theron Young, "Psalm 18 and 2 Samuel 22: Two Versions of the Same Song", in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Winona Lake, Ind, 2005), 54.

16 동일한 단어에서 시편이 완전서법을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절(אוֹתוֹ), 3절(מְצוֹדָתִי), 5절(אֶפְפוּנִי, יִבְעַתּוּנִי, יִבְעַתּוּנִי), 6절(סִבְבוּנִי, קְדַמּוּנִי), 12절(סִבְבוּתִי), 16절(מוֹסְדוֹת), 19절(יְקַדְּמוּנִי), 34절(יַעֲמִידוּנִי), 35절(זִרְעוּתִי), 38절(אֵיבִי), 42절(מוֹשִׁיעַ), 43절(אֲרִיקָם), 44절(יַעֲבְדוּנִי), 47절(אֱלֹהִים, וַיְרֹם), 48절(נִקְמֹת). 반대로 사무엘하에서 완전서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14, 30, 34절).

17 포로 이전의 히브리어 본문에도 읽기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아래의 글, 특히 각 주 46번을 참고하라. Yigal Bloch, *윳글*, 45-46.

편 18편과 같이 완전서법(נקמות)으로 쓰였다. 이러한 점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완전서법이 전반적으로 후대독법의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토브(E. Tov)는 읽기모의 사용 여부를 통해 기록 시기를 완벽히 결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읽기모를 많이 사용하는 책들은 대체로 후기에 쓰여진 책들임을 역설한다.¹⁸ 단순히 서법을 통해 기록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시편과 사무엘하의 MT 및 콤파사본까지 범위를 넓혀 관찰해 보았을 때 우리는 성서 히브리어를 읽는 읽기 전통이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낱말의 의도적인 수정이 관찰된다. 시편은 사무엘하에 존재하는 낱말 반복을 다른 동의어를 사용하여 대체하는데, 총 4번 나타난다.

	사무엘하	시 편
1절	מִכָּף מִכָּף	מִכָּף מִיָּד
7절	אָקְרָא אָקְרָא	אָקְרָא אֲשׁוּעַ
29절	יְהוָה יְהוָה	יְהוָה אֱלֹהֵי
32절	מִבְּלָעָדִי מִבְּלָעָדִי	מִבְּלָעָדִי זִוְלָתִי

이러한 시편의 변화는 필사자 혹은 서기관의 부주의(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수정에는 시편의 평행법과 관련하여 본문을 수려하게 만들고자 하는 예술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서법의 변화 및 낱말을 수정한 위의 예들은 두 본문의 해석적 의미 변화까지 이끌어 내지는 않는다. 다음의 분석은 단어 수

18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213.

19 영은 시편 18편 1절의 יָד וְכַף가 교차 사용되는 것은 히브리 시와 가나안 시에서 일반적인 쌍이라고 지적한다(사 1:1; 62:3; 시 71:4; 잠 10:4; 31:19, 20; 아 5:5), Theron Young, *읽글*, 57.

정을 통하여 의미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경우들이다.

	사무엘하	시 편
8절	מוֹסְדוֹת הַשָּׁמַיִם	מוֹסְדֵי הַרִים
11절	וַיֵּרָא עַל־כַּנְפֵי־רוּחַ	וַיֵּדָא עַל־כַּנְפֵי־רוּחַ
12절	חֲשַׁרְת־מִים עִבֵי שְׁחָקִים	חֲשַׁכְת־מִים עִבֵי שְׁחָקִים
33절	הָאֵל מַעֲוִי חָיִל וַיִּתֵּר תָּמִים דְּרָכּוֹ	הָאֵל הַמְּאֻזְרֵנִי חָיִל וַיִּתֵּן תָּמִים דְּרָכּוֹ
42절	יִשְׁעוּ וְאִין מוֹשִׁיעַ אֶל־יְהוָה וְלֹא עִנָּם	יִשְׁעוּ וְאִין־מוֹשִׁיעַ עַל־יְהוָה וְלֹא עִנָּם

8절 이하의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주제가 나타난다. 사무엘하의 ‘하늘의 기초’라는 표현을 시편은 ‘산들의 기초’로 수정하였는데,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주로 땅의 기초와 산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연재해적 현상을 동반한다(삿 5:5; 사 5:25, 64:2; 시 46:3, 104:32). 특히 시편은 신명기 32장 22절과 일치하고 있다.

사무엘하의 11절을 직역하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וַיֵּרָא)’ 인데 반해, 시편은 ‘바람 날개로 날으셨다(וַיֵּדָא)’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사무엘하 본문 וַיֵּרָא의 7를 시편이 6으로 수정함으로 인해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²⁰

12절에서 사무엘하의 חֲשַׁרְת (하쉬라트)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타나는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이기에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시편은 이것을 חֲשַׁכְת (헤쉬카트/어둠)로 수정함으로써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33절은 3가지의 문제가 있다. 먼저 사무엘하의 ‘나의 요새(מַעֲוִי)’라는 표현은 후반절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시편은 이것을 ‘떠

20 서기관이나 필사자가 레쉬와 달렛을 단순히 혼동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우셨다(הִמְאֻזְרַנִּי)로 수정한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의 ‘뛰게 하다(וַיִּתַּר)’를 ‘주셨다(וַיִּתֵּן)’로 수정하여 역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후반절의 케티브(ketiv)인 וַיִּתַּר를 그대로 따르면 ‘그(하나님)는 그(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뛰게 합니다’ 라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리하여 사무엘하의 케레(qere)는 ו를 י로 읽기를 제안했으며, 시편 본문은 이미 그렇게 וַיִּתֵּן로 수정되어 있다.

이 절에서 사무엘하 본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무엘하의 쿵란 사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사무엘하의 쿵란 사본은 위의 3가지 문제를 모두 시편의 MT와 같이 수정했기 때문이다. 42절의 사무엘하는 ‘그들이 봅니다(וַיִּשְׁעוּ)’라고 되어 있지만, 후반절에 ‘응답이 없다’는 말에 비추어 보면, 시편과 같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וַיִּשְׁעוּ)’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무엘하의 쿵란 사본은 시편과 같이 וַיִּשְׁעוּ로 수정되어 있다.

셋째, 사무엘하에는 없는데 시편에 첨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 역시 시편 저자의 의도적인 첨가라고 볼 수 있다.

	사무엘하	시 편
12절	וַיִּשֶׁת הַשֶּׁךְ סְבִיבוֹתָיו סְכוֹת	וַיִּשֶׁת הַשֶּׁךְ סִתְרוֹ סְבִיבוֹתָיו סְכוֹתוֹ
13절	בְּעָרוֹ וְנַחֲלֵי־אֵשׁ	עֲבָיו עָבְרוּ בְּרֶדֶד וְנַחֲלֵי־אֵשׁ
36절	וַתִּתְּנֵלִי מִן־יָשָׁעַךְ	וַתִּתְּנֵלִי מִן־יָשָׁעַךְ וּמִיַּיִן־ךָ תִּסְעַדְנִי

12절의 시편은 ‘그의 숨는 곳’(סִתְרוֹ)이라는 낱말을 추가하고, 삼하의 סְכוֹת(쑤코트/장막)를 음위전환(音位轉換 metathesis)하여 סְכוֹתוֹ(쑤카토/그의 장막)로 수정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든다. 13절에서 시편은 먼저 구름(עֲבָיו)을 추가하여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리

고 사무엘하의 **וַיִּבְרַח**(바이루/타오르다)를 음위전환하여 낱말을 **וַיִּבְרַח**(아브루/지나가다)로 수정하고, 이어서 **וַיִּבְרַח**(바라드/우박)를 추가함으로써 문맥에 맞게 조화시키고 있다. 36절은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라는 어구가 추가되어 있다. 그 외에 두드러지는 시편의 편집적 추가는 시편 18편 2절이다. 이것은 사무엘하 본문에 완전히 빠져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본문 수정 편집 및 첨가는 전반적으로 시편이 사무엘하 본문의 불분명한 것들을 개정하고 모호한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편의 본문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시편을 사무엘하보다 후대의 본문으로 보도록 만든다. 다수의 학자들은 시편을 사무엘하보다 더 늦은 본문으로 본다.²¹

3. 시편 18편 2절, **וַיִּבְרַח**의 번역 및 본문비평적 문제

1) 시편 18편 2절의 본문비평

그렇다면 이제 시편 18편 2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구절은 여러가지 면에서 흥미로운데, 그것은 이 문장을 이루는 핵심 두 단어가 모두 구약성서에서 독특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וַיִּבְרַח**(헤체크/힘)가 구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명사(**וַיִּבְרַח**)로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는 **וַיִּבְרַח**(라함)의 용례 및 번역과 관련된다.

시편 18편 2절의 **וַיִּבְרַח**(에르하르카)에 대하여 한글역본은 ‘내가 당신을 사

21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19* (Nashville: Thomas Nelson, 2004), 172; Rolf Jacobson, *The Book of Psalms,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191.

랑합니다’로 번역한다(개역성경, 새번역, 공동번역개정, 가톨릭성경). 대부분의 영어역본도 ‘I love you’로 번역하였다(CEB, ESV, NASB, NIV, NJB, NKJ, NRSV).²² 여기에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אָהַב은 구약성서에서 총 49번 나타나는데, 피엘형(piel)으로 42번, 푸알형(pual)으로 6번 나타나 모두 강의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편 18편 2절에서는 אָהַב이 유일하게 칼(qal) 형태로 한 번 나타난다.²³ אָהַב은 구약성서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슈무터마이어(G. Schmuttermayr)는 אָהַב을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 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동사로 설명하였다.²⁴ 그런데 시편 18편 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אָהַב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미론적으로도 독특하다. 게다가 이 행은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22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시편 18편 2절의 독특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행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제안하도록 만들었다.²⁵ 이븐 에즈라(Ibn Ezra)는 이 구절의 신학적인 문제, 즉 인간이 하나님을 동정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로 해석하였다.²⁶ 19세기에 히지히(Hitzig)는 אָהַב의 어근을 אָהַב이 아닌, אָהַב의 폴렐(polel) 형태인 אָהַבְבְּ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며 그 후 여러 학자들이

22 JPS(1985)는 I adore you로 번역하였다.

23 Simian-Yofre, “רָחַם רָחֵם רָחֵם רָחֵם”, *TDOT* XIII, 439.

24 Georg Schmuttermayr, “RHM - Eine Lexikalische Studie”, *Biblica* 51 (1970), 499.

25 Justin J. Evans, “I Love You: Text-Critical Note on Psalm 18:2”, *Vetus Testamentum* 60 (2010), 659; Charles A. Briggs and Emilie Grace Brigg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6), 141.

26 S. David Sperling, “Biblical רָחַם i and רָחַם ii”, *Ve-Eileh Divrei David: Essays in Semitics, Hebrew Bible and History of Biblical Scholarship*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2017), 159.

여기에 동의하였다.²⁷ אַרוֹמִנֵךְ와 동일한 표현은 시편에 몇 군데 더 나타나는데, 감사의 노래의 성격을 지닌 시편의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출 15:2; 시 30:1, 34:4, 118:28, 145:1; 사 25:1). 시편 30편과 118편의 경우 18편과 마찬가지로 양식적으로 감사시에 속하는 시편이므로 시편 18편의 본문 수정 제안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²⁸ 이렇게 본문을 수정하는 제안은 매력적인데, 그럴 경우 47절²⁹의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רום)’와 연결되어 시편의 시작과 끝부분에 찬송으로 인클루지오(inclusio)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무엇보다 많은 필사본과 고대 번역본들이 ׀׀׀을 지지한다. אֲרָחָהָ׀는 70인경, 불가타, 타르굼, 페쉬타 역본들에 의해 지지된다. 무엇보다 시편 쿨란사본(11QPS^a)을 고려하면, MT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나아보인다. 쿨란 시편 두루마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חַמְתִּיכָה יְהוָה חֲזָקִי

쿨란시편은 ׀׀׀이 미완료가 아닌 완료로 번역되어 있어, 그 낱말이 분명

27 Justin J. Evans, “I Love You: Text-Critical Note on Psalm 18:2”, 659; Frank Moore Cross and David Noel Freedman, “A Royal Song of Thanksgiving: 2 Sam 22 = Ps 18”, 22; J. Kenneth Kuntz, “Psalm 18: A Rhetorical-Critical Analysi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 (1983), 8-9;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FOTL 14* (Grand Rapids, 1988), 97; Kraus, Hans-Joachim, *Psalms 1-59: A Commentary*, trans. by Hilton C. Oswald (Minneapolis, 1988), 254; Hossfeld, Frank-Lothar and Erich Zenger, *Die Psalmen I: 1-50* (Würzburg, 1993), 122. J. 루터, 메이스, 「현대성서주석: 시편」(신정관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8 많은 학자들은 시편18편을 제왕시이면서 동시에 감사시로 분류한다. Hans-Joachim Kraus, *율글*, 257.

29 한글 개역성경은 46절이다.

30 Alison Ruth Gray, *Psalm 18 in Words and Pictures: A Reading through Metaphor,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27 (Leiden: Boston: Brill, 2014), 58.

히 אה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편 18편 2절 אהב에 대한 번역 문제

(1) 시편 18편 본문의 현대화 및 아람어화 현상

그렇다면 시편 18편의 אהב을 ‘사랑하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시편이 사무엘하와 비교해볼 때 더 후대의 본문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학자들은 대체로 합의된 경향을 보인다.³¹ 무엇보다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서법에 있어서 완전서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은 시편 본문이 현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편은 사무엘하가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 אֶת(에트)를 사용하는 곳에서 동사 접미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20절),³²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제2성전기 히브리어의 특징이며 쿰란 히브리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³³

뷔르트바인(Würthwein)은 본문의 현대화된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낱말들이 당대의 구어 형태로 동화되었음을 지적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아람어화(aramaism) 현상을 지적한다.³⁴ 구약성서 내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분명한

31 James Barr, *윗글*, 174.

32 삼하 18:20 MT의 경우 전치사 אֶת를 사용했지만, 쿰란사본은 시편과 같이 동사접미사를 사용한다. 이것을 통해 동사접미사가 후대의 독법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왕상 9:28; 대하 22:9; 왕하 14:20; 대하 25:28과 같은 평행본문들에서도 관찰된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라. Shalom M. Paul, "Signs of Late Biblical Hebrew in Isaiah 40-66", in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Cynthia L. Miller-Naudé and Ziony Zevit (ed.),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2), 294; 샌즈 바딜로스, 「히브리어 발달사」(박미섭 옮김), (서울: 기혼, 2011), 137. 원제는 Saenz-Badillos, Angel.,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3 김동혁, "쿰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의 유형론", 「구약논단」 23 (2017), 363-366.

34 Ernst Würthwe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Grand Rapids: Eerdmans, 1995), 15. 또한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Avi Hurvitz, "Hebrew and Aramaic in the Biblical Period: The Problem of 'Aramaisms' in Linguistic Research on the Hebrew Bible",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Ian Young (e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3), 24-37.

만남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이 아닌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원전 700년경 어간에 아람어는 유다 지역에 알려져 있긴 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관들이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람어화 현상은 아람어에서는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독특한 것이다.³⁵ 후르비츠(A. Hurvitz)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결정적 만남은 바빌론 포로기임을 역설하면서, 아람어화 현상이 성경의 모든 장르 및 연대에 걸쳐 발견되기는 하지만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관련되는 아람어화 현상을 구별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³⁶

(2) 시편 18편의 아람어적 현상에 대한 검토

아람어화 현상에 비추어 두 평행본문을 대조해볼 때, 시편 18편에 사무엘하의 평행 구절과는 다른 아람어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신명이다.

35 Ian Young and Robert Rezetko,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ol 1* (London: Routledge, 2016), 208.

36 후르비츠는 후기성서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 이하 LBH로 표기)의 특징에 대해 논증하면서, 아람어화 현상의 영향에 대하여 글을 썼다(1968, 2003년). 후르비츠는 성서 안에 침투되어 있는 아람어화 현상이 초기 본문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람어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포로 후기의 본문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르비츠 및 여러 학자들은 아람어화 현상이 바벨론 포로 이후 문헌들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성서 안의 아람어화 현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Avi Hurvitz, "Hebrew and Aramaic in the Biblical Period: The Problem of 'Aramaisms' in Linguistic Research on the Hebrew Bible", 29; Avi Hurvitz, "The Chronological Significance of 'Aramaisms' in Biblical Hebrew", *Israel Exploration Journal* 18 (1968); Ian Young and Robert Rezetko,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ol 1* (London: Routledge, 2016), 212f; Na'ama Pat-El, "Traces of Aramaic Dialectal Variation in Late Biblical Hebrew", *Vetus Testamentum* 58 (2008), 650-55; 신성윤,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아람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정목적어 표시어 5의 사용을 중심으로", 「언어와언어학」 45 (2009), 137-162.

사무엘하 22:32	시편 18:32
כִּי מִי־אֵל מִבְּלָעַי יְהוָה	כִּי מִי אֱלֹהִים מִבְּלָעַי יְהוָה

사무엘하에 אל(엘)이 언급되는 곳에, 시편에는 אֱלֹהִים(엘로아흐)가 나타난다.³⁷ אֱלֹהִים는 אֱלֹהִים의 단수형으로써, 구약성서에서 57번 나타난다. HALOT은 אֱלֹהִים가 아람어에서 자주 사용되며 복수형태로부터 역형성된 것(back-formation)으로써 주로 히브리 시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후기 형태로 설명한다.³⁸ 구약성서에서 אֱלֹהִים는 거의 운문에서만 나타나며(신 32:15, 17; 사 44:8; 합 3:3; 시 18:32; 50:22; 139:19; 잠 30:5; 단 11:37-39),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포로기 이후 문헌에만 나타난다.³⁹ 대부분은 율기(41번)에 나오는데 율기에서 אֱלֹהִים의 사용은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⁴⁰ אֱלֹהִים가 구약성서에서 신명기 32장 17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전서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אֱלֹהִים는 또한 다니엘서도 4번 나타나는 데 다니엘서는 아람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다.

두 번째는 시편 18편에 전치사 מִן의 מ이 사무엘하와 대조해 볼 때, 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두 번 나타난다.

37 이 부분에 대해서 영(T. Young)은 시편의 אֱלֹהִים를 북이스라엘의 언어적 영향으로 본다. 영은 렌즈버그의 연구에 동의하고 있다. T. Young, *윳글*, 58-59.

38 Koehler 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 M. E. J. Richardson (Leiden: Brill, 2001), 52. 이하 HALOT으로 표기.

39 율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과 다니엘서이다. W. H. Schmidt, "אֱלֹהִים", *TLOT* 1, 115.

40 율기는 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학자들은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율기에 나타나는 아람어화의 경향을 지적한다.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율기」(서울: 감은사, 2020), 28;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율기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6), 62; Terence E. Fretheim, "אֱלֹהִים, אֱלֹהִים", *NIDOTTE* 1, 400.

	사무엘하	시 편
4절	וּמִן־אִבְי אֲשֶׁעַ	וּמִן־אִבְי אֲשֶׁעַ
49절	וּמִקָּמִי	מִן־קָמִי

폴진(R. Polzin)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전치사 ׀의 ׀이 눈이 정관사 없는 명사 앞에서 종종 동화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⁴¹ 이러한 현상은 구약성서에서 98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51번이 역대기에 나타나며, 그 외에 잠언, 다니엘, 느헤미야서와 같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 문헌들에 나타난다.⁴² 이런 현상이 구약성서 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⁴³ 그러나 후기 성서 히브리어(LBH), 쿰란 히브리어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된다. 예를 들어 아가서의 쿰란사본(4QCant^b)에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영(Ian Young)은 아가서의 쿰란사본을 MT와 비교하면서 아람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전치사 ׀이 관사 없는 명사 앞에서 동화되지 않는 현상이다.⁴⁴ 아가서의 MT에는 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쿰란사본에서는 반대로 동화된 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⁴⁵

세 번째는 ׀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약성서에서 ׀이 칼 형태로 쓰인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 그러나 ‘사랑하다’ 라는 의미로서의 ׀은 아람어에서 일반적이며 잘 입증된다.⁴⁶ 아람어로 기록된 세피르(Sefire) 봉신 조

41 Robert Polzin,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1976), 66;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6), 450; 샌즈 바딜로스, 윌글, 138.

42 또한 이 현상은 바르 코크바(Bar Kokbah)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Robert Polzin, 윌글, 66.

43 Ian Young, “Late Biblical Hebrew and Hebrew Inscriptions”,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A&C Black, 2003), 289-290.

44 Ian Young, “Notes on the Language of 4QCant-b”, *Journal of Jewish Studies* 52, no. 1 (2001), 122-123.

45 윌글, 123.

46 Gzella, “׀”, *TDOT* XVI, 710.

약 비문에는 ‘사랑’의 주제가 나타나는데, ‘아하브(אהב) 동사 대신에 ‘르함(רחם) 동사로 대치되어 있다.⁴⁷ 최종원은 북서셈어 영역에서 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지적하였는데, 신명기와 세피르 비문의 비교 속에서 관찰하였다.⁴⁸ 이를 적용하면, 시편 18편 2절의 רחם의 칼 형태에 대한 해석 역시 아람어와의 언어학적 관련성 속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3) 타르굼(Targum)과의 비교를 통한 רחם의 의미 분석

그렇다면 이제 רחם을 구약성서의 아람어 역본인 타르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히브리어 רחם에 대응하는 아람어는 רחם이다. 아람어 רחם 동사는 기본형이 פעאל(peal)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사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רחם의 칼 형태에 해당한다. 아람어 רחם의 강의형인 פּאַל(pael) 형태는 ‘궁휼히 여기다’(pity)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역시 히브리어의 강의형(piel)에 잘 대응한다.⁴⁹ 이것을 구약성서의 아람어 역본인 타르굼에 적용하여 용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⁵⁰ 타르굼에서 רחם은 פעאל형으로는 175번, פּאַל형으로는 92번 나타나는데, 시편으로 국한시키면 רחם은 פעאל 형태로 35번, פּאַל 형태로는 8번 나타난다.⁵¹

47 세피르(Sefire) 비문은 아람어로 기록된 문헌으로 1930년에 알렙포(Aleppo)의 남동쪽 한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KTK의 왕이었던 바르-가야(Bar-gāyah)와 아르파드(Arpad)의 왕 마티엘(Matiel)의 조약 내용을 담고 있다. William W. Hallo and K. Lawson Younger Jr., eds.,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COS 2* (Leiden: Brill, 2003), 213;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20, no. 2 (2014), 52.

48 윗글, 53.

49 “רחם”, HALOT, 5:1981; “רחם”, *Dictionary of Qumran Aramaic*, 221; Michael Sokoloff, *A Dictionary of Jewish Palestinian Aramaic of The Byzantine Period*, vol. 2 (JHU Press, 2002), 521.

50 여기에서 표본으로 사용된 자료는 타르굼 웅켈로스(Onkelos), 타르굼 요나단(Jonathan), 성문서 타르굼(the Writings)이다. 타르굼 사본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성경 프로그램인 어코던스(Accordance) 13.3을 통해 분석하였다.

51 시편에서 רחם의 פעאל형 용례는 다음과 같다. 시 4:3, 5:12, 11:5, 7, 26:8, 31:24, 33:5, 34:13, 37:28, 40:17, 45:8, 47:5, 52:5, 6, 69:37, 70:5, 78:68, 87:2, 99:4, 109:5, 17, 116:1, 119:47, 48, 97, 113, 119, 127, 140, 159, 163, 165, 167, 127:2, 146:8.

시편 타르굼에서 **אהב**의 파엘 형태는 모두 ‘궁홀히 여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MT와 대조해볼 때, 거의 **אהב**의 피엘형을 번역한 것이다.⁵² 한편, 타르굼 시편에서 **אהב**의 폐알 형태는 MT 시편과 비교해볼 때, 모두 동사 **אהב**를 번역한 것이다. 반대로 MT 시편에 나오는 동사 **אהב**에 대하여 타르굼은 예외없이 **אהב**의 폐알 형태로 옮겼다.⁵³ 그러므로 시편의 용례에서, 아람어 **אהב**의 폐알은 ‘사랑하다’로, 파엘은 ‘궁홀히 여기다’의 의미로 옮겨져 그 의미가 일관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시편을 벗어나면, **אהב**의 폐알과 파엘형이 항상 구별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일부 확인된다. 말라기 1장 2절의 타르굼을 보자.

개역개정	TAR	MT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רַחֲמִים יִתְכוֹן אָמַר יְיָ וְאִם חִמְרוֹן בְּמֵא רַחֲמֵינָא	אֶהְבֵּתִי אֶתְכֶם אָמַר יְהוָה וְאֶמְרָתֶם בְּמֵא אֶהְבֵּתֵנּוּ

MT는 **אהב**를 두 번 사용하였으나 타르굼은 **אהב**을 파엘형으로 한 번 사용하고, 이어서 폐알형을 사용하여 형태의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אהב의 파엘형 용례는 다음과 같다. 시 27:7; 41:2; 66:13; 76:11; 102:14; 103:13; 116:5. 타르굼의 시편 66:13과 76:11에 있는 **אהב**은 MT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이것은 타르굼 시편이 MT의 내용을 해석하여 확장한 것인데 이것은 타르굼의 특징이기도 하다.

52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시편 27편 7절이다. 시 27:7의 **חָנַן**을 타르굼은 **אהב**의 파엘로 옮겼다. 그러나 **חָנַן**은 ‘궁홀히 여기다’의 의미로써 히브리어 **אהב**의 파엘 형태에 대응한다.

53 시편에서 동사 **אהב**는 39번 나온다. 시 4:3; 5:12; 11:5; 11:7; 26:8; 31:24; 33:5; 34:13; 37:28; 40:17; 45:8; 47:5; 52:5; 52:6; 69:37; 70:5; 78:68; 87:2; 99:4; 109:17; 116:1; 119:47, 48, 97, 113, 127, 140, 163, 165, 167; 146:8. 이 용례들에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시편 38편 12절 에서는 명사(**רחמים**)로 번역되었으며, 그 외에 형용사로 번역한 부분이 있다(시 88:19; 97:10; 119:132; 122:6; 145:20). 그러나 모두 어근은 **אהב**에서 온 것이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보자.

개역개정	TAR	MT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וַתֵּימָן מִיכָל בַּת שָׂאוּל אֶת דָּוִד	וַתֵּאָהֵב מִיכָל בַּת־שָׂאוּל אֶת־דָּוִד

사무엘상 18장 20절은 문맥으로 볼 때, ‘공홀’이 아닌 ‘사랑’의 의미가 확실하다. MT는 אהב 동사를 사용했는데, 탈군은 םרה의 파엘형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점은 아람어에서 םרה의 폐알과 파엘형의 의미가 완전히 구별된다고 보기보다는 서로 유사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⁵⁴ 즉, םרה의 파엘이 항상 ‘공홀’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사랑하다’와 ‘공홀히 여김’은 의미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펠링(Sperling)은 초기 아람어 서법에서는 םרה의 의미론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⁵⁵ 이러한 의미론적인 차이는 고대 셈어인 아카드어에서 식별될 수 있는데, 아카드어에서 ‘사랑’과 ‘공홀’은 분명하게 구분된다.⁵⁶

(4) 시편 116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םרה의 의미

우리는 타르군에 나타난 םרה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םרה의 칼 형태가 아

54 이외에도 사 43:4; 48:14; 57:8; 렘 31:1; 호 9:1, 10, 15; 14:4; 전 3:8은 MT의 אהב가 타르군에서 <르함>의 파엘형으로 번역되었다.

55 S. David Sperling, *윗글*, 166-167.

56 스펠링은 ‘공홀’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고전 셈어에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아카드어를 예로 든다. 아카드어에서 ‘사랑’은 rāmu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사랑’, ‘(성적인) 욕망’, ‘신호’, ‘좋아하다’의 의미장을 가진다. 그에 비해 아카드어 rēmu는 ‘공홀’, ‘연민을 나타내다’, ‘동정심을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동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S. David Sperling, *윗글*, 159-174; Robert D. Biggs, “rāmu, rēmu” *CAD 14*, eds. Robert D. Biggs, et al.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99), 127, 136-140, 259-265.

람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런데 시편 18편을 본문상호적으로(intertextuality) 접근할 때, ׀חם의 칼 형태를 동사 אהב와 상호교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 있다. 그것은 시편 116편인데 그 중 일부가 시편 18편과 평행을 이룬다.

시편 18편	시편 116편
וַיֹּאמֶר אֲרַחֲמֶךָ יְהוָה הַזִּקְי (2v)	אֲהַבְתִּי כִּי־יִשְׁמַע יְהוָה אֶת־קוֹלִי תַחֲנוּנִי (1v)
אֶפְפוּנֵי הַבַּלְי־מוֹת (5a)	אֶפְפוּנֵי הַבַּלְי־מוֹת (3a)
חַבְלֵי שְׂאוֹל סָבְבוּנִי (6a)	וּמִצְרֵי שְׂאוֹל מִצְאוּנִי (a33)
בְּצַר־לִי אֶקְרָא יְהוָה וְאֵל־אֱלֹהֵי אֲשׁוּעַ (7a)	וּבִשְׁמֵי־יְהוָה אֶקְרָא אָנָּה יְהוָה מִלְּטָה נַפְשִׁי (4v)

위의 네 줄에서 평행되는 동사는 첫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활용형을 보여준다. 시편 116편 3절에서 מִצְאוּנִי(쓰차우니 / 이르렀다)는 18편 6절의 סָבְבוּנִי(쓰바부니/둘러쌌다)와 평행되어 교차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116편 1절의 אהב는 시편의 ׀חם과 평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슈투터마이어는 시편 116편의 첫 부분이 시편 18편에 직접적으로 의존한 것임을 지적한다.⁵⁷ 116편은 18편의 ׀חם의 ‘미완료’(점두활용) 형태를 אהב의 ‘완료’(점미활용) 형태로 바꾸어 옮겼지만, 이러한 활용형의 변화는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쿰란시편 18편이 MT ׀חם의 미완료를 완료형태로 옮긴 것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18편의 ׀חם을 타르굼은 חבב(사랑하다)로 번역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⁵⁸ 그리고 시편 116편의 אהב를 타르굼은 ׀חם의 폐알로 옮겼다. 이런 점들은 시편 ׀חם의 칼 형태가 ‘사랑하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57 Georg Schmuttermayr, 윗글, 500.

58 חבב 동사는 타르굼에서 10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삼상 18:1; 삼하 1:26; 사 1:2, 13:12; 호 9:10; 시 18:2; 잠 4:8; 아 1:2; 대하 17:13). חבב는 아람어에서 후기로 갈수록 ׀חם의 폐알형태로 대체된다. MT의 אהב는 타르굼에서 거의 ׀חם으로 번역되고, 일부가 חבב로 번역되었다. 한편, MT에서도 חבב 동사가 한 번, 신명기 33장3절에 나타난다. Gzella, “׀חם”, TDOT XVI, 710.

있음을 지지한다.

4. 사무엘하 22장과의 대조적 관점에서 본 시편 18편 2절의 신학적 의미

시편 18편 2절은 사무엘하에는 나타나지 않는 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 라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구절에 대한 시편의 편집적 추가는 본
문의 신학적 함의를 어떻게 분명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특별히 두 평행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인칭의 변화를 분석해 볼 때 파악될 수 있다. 시편
과 사무엘하를 대조해 보면 세 번의 인칭의 변화가 나타난다.

	사무엘하	시 편
3절	אלהי צורי אֱחָסֶה-בּוֹ	אֱלֹהֵי צוּרִי אֶחְסֶה-בּוֹ
16절	בַּנְעֻרֹתַי יְהוָה מִנְשַׁמַּת רוּחַ אָפוּ	מִנְעֻרֹתַי יְהוָה מִנְשַׁמַּת רוּחַ אָפֶךְ
36절	וַחֲתוּלַי מִגֹּן יִשְׁעֶךָ וְעֵנְתֶךָ תִּרְבְּנִי	וַחֲתוּלַי מִגֹּן יִשְׁעֶךָ וַיִּמְיֶנְךָ חֲסֵעֵדֶנִי וְעֵנְתֶךָ תִּרְבְּנִי

먼저 3절에서 사무엘하는 하나님을 연계형(אלהי)으로 사용하지만, 시편
은 하나님을 뒤이어 나오는 낱말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호격으로 수정하고,
1인칭 대명 접미사를 붙인다(אלי).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은 하나님과의 (연약)관계의 친밀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אלי
는 구약성서에서 12번 나오는데, 10번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나
타나며, 나머지 2번은 모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시 18:3; 출
15:2).⁵⁹ 이러한 신명에 대한 문법적인 변화는 시편이 사무엘하보다 하나님과

59 T. Young, *윗글*, 58.

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절은 개역성경으로 볼 때, 두 본문에 차이가 없지만, 원문 상에서는 분명한 대명 접미사의 차이가 관찰된다. 사무엘하는 ‘야훼’의 꾸지람과 ‘그’의 진노라고 말하지만, 시편은 야훼를 3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꾸지람 때문입니다. 야훼여! 당신의 콧김 때문입니다.’ 라고 2인칭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여 표현한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 곳에서 시편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수정한 것은 역시 사무엘하보다 시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6절도 마찬가지다. 36절은 행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 시편의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입니다(36aβ)’ 라는 표현이 사무엘하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시편 18편 2절을 생각해볼 때, 사무엘하에는 빠져 있는 시편 18편 2절의 편집적 추가는 위의 결과를 더 강화한다. 인칭의 변화들은 시편이 사무엘하에 비해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만드는 강력한 문장이 된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본문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개정과 의미가 달라지는 편집적 수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시편의 개정은 사무엘하 본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었으며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 낸 시편의 개정 역시 사무엘하의 모

호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시편 편집자는 이렇게 본문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당대의 독자들을 위해 서법을 현대화하고 본문의 일부를 아람어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아람어 문헌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אָהַב**의 칼 형태가 가지는 ‘사랑’의 의미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수직이라는 방향의 관점에서 볼 때, **אָהַב**은 성서 전체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일관된 움직임을 갖고 있으나 시편 18편의 **אָהַב**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시편집이 가지는 구약성서의 독특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אָהַב**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시편은 야훼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다른 책들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시편은 본질적으로 그 발화행위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고 있기에 시편 18편의 사랑(**אָהַב**)의 방향은 사실 굉장히 시편스럽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하 22장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 시편 18편 2절에 추가된 것은 시편의 의미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최종 편집자의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최종 편집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편 18편 2절에서 사용된 **אָהַב**의 칼 형태는 비록 구약성서 안에서는 용례가 없는 유일한 것이지만 본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시편 18편의 최종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혁, “쿰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의 유형론”, 『구약논단』 23(4) (2017), 356-383.
- 메이스, J. 루티, 『현대성서주석: 시편』 (신정균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6).
- 샌즈 바딜로스, 『히브리어 발달사』 (박미섭 옮김), (서울: 기혼, 2011). 원제 Saenz-Badillos, Angel.,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신성윤,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아람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정목적어 표시어 𐤊의 사용을 중심으로”, 『언어와언어학』 45 (2009), 196-220.
-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율기』 (서울: 감은사, 2020).
-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67-86.
-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 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20 (2014), 42-72.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율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6).
- Accordance Bible Software Version 13.3 (OakTree Software, 2020).
- Barr, James., *The Variable Spellings of the Hebrew Bible* (Th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Biggs, Robert D., “rāmu, rēmu.” CAD 14. Robert D. Biggs (ed.),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99).
- Bloch, Yigal., “The Prefixed Perfective and the Dating of Early Hebrew Poetry—A Re-Evaluation.” *Vetus Testamentum* 59 (2009), 34-70.
- Briggs, Charles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6).
- Cook, Edward M., *Dictionary of Qumran Aramaic*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 Craigie, Peter C., *Psalms 1-50. WBC 19*. (Nashville: Thomas Nelson, 2004).
- Cross, Frank Moore, David Noel Freedman., “A Royal Song of Thanksgiving: 2 Sam 22 = Ps 18a.” *JBL* 72 (1953), 15-34.
- Dahood, Mitchell., *PSALMS I 1-50.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 Press, 1974).
- Declaissé-Walford, Nancy, Rolf A. Jacobson, and Beth Laneel Tanner., *The Book of Psalms*. NICOT. Accordance electronic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2012).
- Evans, Justin J., “I Love You: Text-Critical Note on Psalm 18:2.” *Vetus Testamentum* 60 (2010), 659-661.
- Frank-Lothar, Hossfeld and Zenger, Erich., *Die Psalmen I: 1-50* (Würzburg, 1993).
- Fretheim, Terence E., “אֱלֹהֵי אֱלֹהִים”, *NIDOTTE* 1, 400.
-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FOTL 14 (Grand Rapids, 1988).
- Gzella, “רָחַם”, *TDOT* XVI, 710.
- Gray, Alison Ruth., *Psalm 18 in Words and Pictures: A Reading through Metaphor*.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27* (Leiden ; Boston: Brill, 2014).
- Hallo, William W.,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COS 2 (Leiden: Brill, 2003).
- Hans-Joachim, Kraus., *Psalms 1-59: A Commentary*, trans by Hilton C. Oswald (Minneapolis, 1988).
- Hurvitz, Avi., “The Chronological Significance of ‘Aramaisms’ in Biblical Hebrew.” *Israel Exploration Journal* 18 (1968), 234-240.
- _____, “Hebrew and Aramaic in the Biblical Period: The Problem of ‘Aramaisms’ in Linguistic Research on the Hebrew Bible”, *Biblical Hebrew :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Ian Young (e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3), 24-37.
- Kuntz, J. Kenneth., “Psalm 18: A Rhetorical-Critical Analysi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 (1983), 3-31.
- Longacre, Robert E., “Discourse Structure, Verb Forms, and Archaism in Psalm 18”, *Journal of translation* 2 (2006), 17-30.
- Paul, Shalom M., “Signs of Late Biblical Hebrew in Isaiah 40-66”,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Winona Lake, IN:

- Eisenbrauns, 2012), 293-299.
- Pat-El, Na'ama, "Traces of Aramaic Dialectal Variation in Late Biblical Hebrew", *Vetus Testamentum* 58 (2008), 650-55.
- Polzin, Robert.,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1976).
- Koehler 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 M. E. J.
- Richardson (Leiden: Brill, 2001).
- Schmidt, W. H., "אֱלֹהִים" *TLOT* I,115.
- Schmuttermayr, Georg., "RHM - Eine Lexikalische Studie." *Biblica* 51 (1970), 499-525.
- Simian-Yofre., "רחם רחמים רחום רחמי." *TDOT* XIII, 439.
- Sokoloff, Michael., *A Dictionary of Jewish Palestinian Aramaic of The Byzantine Period*. Vol. 2 (JHU Press, 2002).
- Sperling, S. David., *Ve-Eileh Divrei David: Essays in Semitics, Hebrew Bible and History of Biblical Scholarship*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2017).
- Tov, Em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Wurthwein, Ernst.,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2nd edition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 Young, Ian, and Robert Rezetko.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ol 1* (London: Routledge, 2016).
- _____.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A&C Black, 2003).
- _____, "Notes on the Language of 4QCantb", *Journal of Jewish Studies* 52 (2001), 122-31.
- Young, Theron., "Psalm 18 and 2 Samuel 22: Two Versions of the Same Song", In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2005), 53-69.

검색어

시편18편2절

사무엘하22장

라함(rhm)

아람어화현상

**The Translation of ‘I Love You, Lord’ of Psalm 18:2
and Its Theological Meaning
- Focusing on Its Comparison with 2 Samuel 22**

Kwang-Hyung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logical meaning Psalm 18:2 within the main body of the Psalm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t with its parallel text, 2 Samuel 22. Psalm 18 and 2 Samuel 22 apparently are not very different. But, when the two texts are compared linguistically, they reveal various differences and problems. Such differenc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kinds: differences in orthography, revision of words and grammar, and addition and deletion of words and sentences. Scholars have paid attention to defects of ‘yod’ and ‘waw’ which appear in two texts. While it is not consistent, the writings in the Psalm tend to adopt plene spelling more than

www.kci.go.kr

those in 2 Samuel. Meanwhile,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Psalm 18:2. The line itself is not shown in 2 Samuel. The verb ‘rhm’ used in the phrase is ‘qal’ form, and it is peculiar to observe that the form is used only here in the entire Old Testament.

This study examined the phrases which can be regarded as Aramaism phenomenon, one of the effects of Late Biblical Hebrew, and checked the understanding of ‘rhm’ mentioned in Psalms 18:2 in light of the Aramaism phenomenon. It indicates that the Psalmic text was more modernized than that of 2 Samuel. And, this study compared ‘rhm’ in the Masoretic Text (MT) with the ‘peal’ form and ‘pael’ form shown in Targum, ancient Aramaic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addition, through intertextuality between Psalms 18 and 116, we can observe that rhm of Psalm 18 can be exchangeable with ‘ahab.’

The final editor of the Psalm revised 2 Samuel in various aspects. Above all, the editor made clearer some ambiguous sentences in 2 Samuel, and modernized the text of the Psalm for contemporary readers.

Keywords

the Psalms 18:2

2 Samuel 22

RHM

Aramaism,

- 투고일: 2022년 7월 07일
- 심사일: 2022년 7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1일

www.kci.go.kr